

대행 스님

영원한 오늘을 안다면 영원한 오늘도 벗어날 것입니다

한마음 주인공에 대해

질문 요새 유튜브의 대행 스님 법문을 통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라 하시는데 그 뜻이 딱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과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 주인공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동한, 움죽거리지 않고 능력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나의 근본 자체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을 선장이라 한다면 내 영혼은 부선장이 되죠, 얼른 쉽게 말하자면. 이 선장에 의해서 부선장이, 지금 여러분이 다 부선장입니다, 허허허.

"위로는 선장을 믿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면서 가거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위로는 선장을 쥐고 아래로는 중생의 팔을 쥐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맷돌을 굴리는데, 그 맷돌 심봉이 구르지도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맷돌을 돌아가게 하는 힘의 배출구란 말입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안 계시다면 댁은 지금 송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게 되는 것도 자기의 근본,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놈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냥 천차만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율적이죠. 그러니까 그놈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지만 역력하게 말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작용하고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그냥 '마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한마음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만 알면, 외부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되죠. 사대 성인들이 모두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하느니라. 너부터 알아야 큰 공덕이 되지, 너를 네가 모르고는 절대 공덕을 얻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공덕이란 뜻은,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바로 나 하나가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거하고 같이 한자리를 할 때에 비로소 공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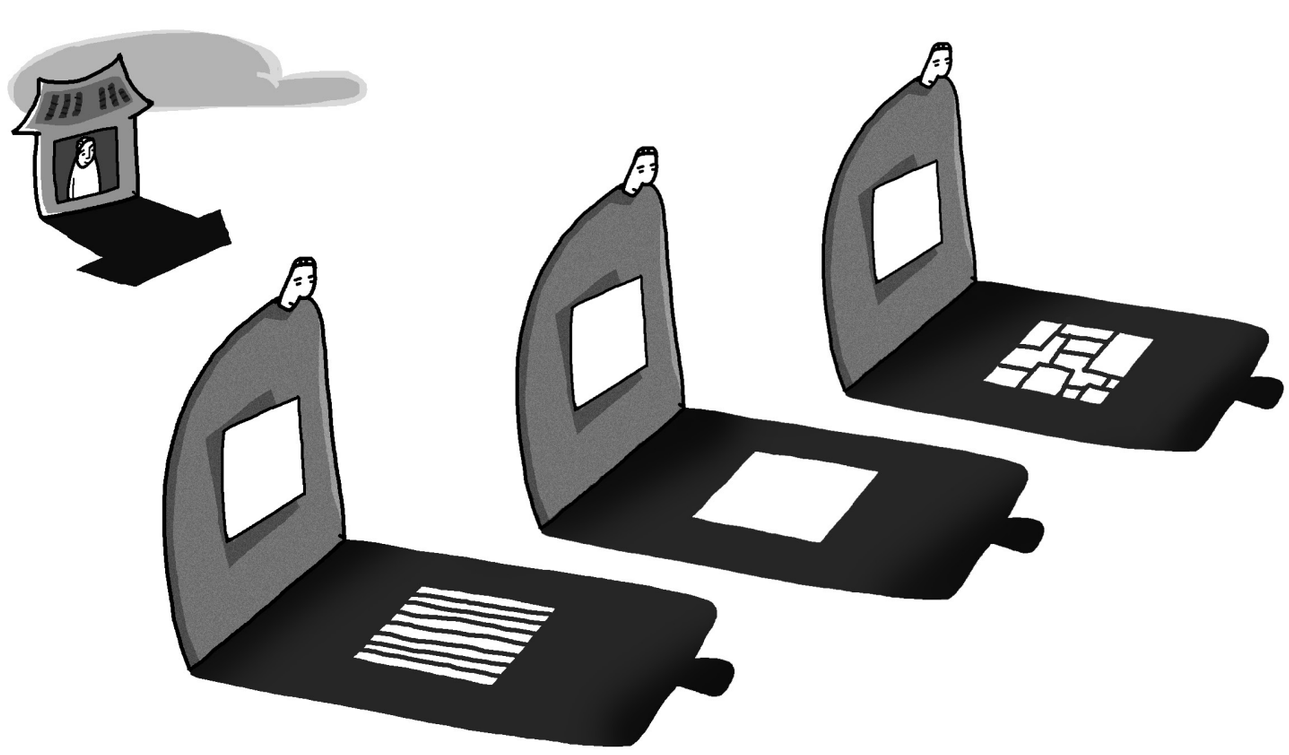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질문 반야심경에서도 "우리 함께 어서어서 벗어나세" 했는데, 정말 저도 제 마음의 감옥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관하면서 주인공에 맡겨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꾸 제 마음에 속고 맙니다. 제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에 누구나가 다,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자기가 형성시켜서 자기가 난 것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형성시켜서 났으니까 바깥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바깥에서 구하려고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깥의 형상을 보고 남에 참견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한테 인연이 있어서 닿는 일은 모든 것을 나한테, 그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한테 말할 게 아니라 바로 내공에다가 믿고 놓고, 거기에서 굴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뿐이겠습니까. 생활이 불교고 불교가 생활이고 또는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인지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부하는 데에 어디에 역점을 둬야 하느냐. 생활이라면 가정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 생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공중에다가 우주 정거장을 만든다,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고 사람이 우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 이 전체가 상응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허가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지마는 우리가 보이는 데보다도 더 역력하고 더 세밀하고…, 쌀 한 토막 에누리가 없는 이 법은 아주 엄중하고 엄중합니다.

그러니 얼른 생각할 때에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나?' 하지마는 그렇게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생활에서도 하나하나 말을 하지 않고 한 생각을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생각이 벌써 건너고 나면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어서 내 몸뚱이 움죽거려서 거길 갔을 때에는 이미 마음이 한마음으로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다 같아지니 이 육신도 같이 참 좋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이 법이 일상생활에 쓰여진다는 것을 역력히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시대가 공중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공중으로 어떠한 혹성의 타격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세균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공해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에 공해도 없을 것이요, 한 생각에 공해도 있을 것이요, 있다 없다, 한다 안 한다를 한 생각에…, 내 한 생각이라면 그렇게 법이 돼서 그대로 정돈이 될 때에 바로 내 이 살림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우리가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는 작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작용법을 바로 여러분이 다 섬세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바로 그것이 화두가 되고 그것이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를 만들 수 있는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생각을 내는 것도 생명의 불성이 있으니까 생각을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바깥에서 자꾸 찾는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비교해서 한 번 말씀드리죠. 줄창 내가 얘기하지만 작년 콩씨를 올해 심어서 콩 싹이 났습니다. 콩 싹이 자라서 콩이 열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콩나무는 자기 콩나무에서 콩씨가 열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작년에 심은 그 콩씨를 찾는 겁니다. 내가 나기 이전을 찾으라니까 그만 바깥에서, 작년에 밭에 심었던 그 콩씨를 찾느라고 헤매고 돕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코를 꽁꽁 막고선 냄새를 맡으려고 해 보십시오, 냄새 맡아지나. 혀를 끊고서 말을 하려고 해 보십시오, 말이 되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 마음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진가를 맛보았어도 맛본 그것을 또 안으로 굴려서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지혜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는 말 할 필요가 없이 안으로 굴리고 굴려서 또 지혜를 넓히고….

지혜를 넓혀서 또 온 바다를 만드는 거와 같이 내 마음이 온 누리 어느 곳곳에 닿지 않는 데가 없이 됐을 때에, 여러분과 나와 둘이 아니게끔 됐을 때에 일체 만물, 무정물이나 모든 생물, 물에 있는 고기와 대화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저런 풀잎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풀잎들이 다 말을 해 주고 '이것은 당신의 약이 되

☞ 22면으로 계속

